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차재훈 · 김윤범 · 남혜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 The stastical analysis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new outpatients

*Jae-Hoon Cha · Yoon-Bum Kim · Hae-Jeong Nam*

**Objective** :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hange of new outpatients in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Methods** : We did stastical analysis about 4638 new outpatients who had visited the 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in Kyunghee oriental medicine center from January 1, 2004 to December 31, 2006 and had ophthalmologic, otologic, rhinologic, laryngologic and dermatologic diseases.

**Results** :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Distribution of ophthalmology, otology, rhinology, laryngology and dermatology classification in new outpatients was 44.74% in dermatology the most, 26.50% in rhinology, 14.45% in otology, 8.78% in ophthalmology, 5.54% in laryngology. In all classifications except ophthalmology, outpatients increased, but the proportion of outpatients increased the most in dermatology.
2.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ophthalmology was 20.15% in 51-60 years old the most. And 36.61% in dry eye the most, next 27.03% in visual disorder, 10.07% in strabismus.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ophthalmology in strabismus decreased by 43.93 percent point but in dry eye increased by 32.17 percent point.
3.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otology was 24.94% in 61+ years old the most. And 64.03% in tinnitus, hearing loss the most, next 17.46% in vertigo, dizziness. By 17.36 percent point, it in tinnitus, hearing loss decreased. But in vertigo, dizziness increased by 14.91 percent point.
4.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rhinology was 40.93% in 0-10 years old the most. And it increased by 20.08 percent point. 69.30% in rhinitis the most but it decreased by 17.70 percent point. But 32.59% in sinusitis, that means it increased by 14.41 percent point.
5.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laryngology was 68.09% in female, 23.35% in 51-60 years old the most. And it was 29.96% in laryngopharyngitis, 19.07% in stomatitis, 14.40% in the diseases of tongue.

6.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dermatology was 37.21% in 21-30 years old the most. And it was 22.93% in atopic dermatitis the most, next 14.77% in urticaria. That means it increased by 8.19 percent point. But the proportion of the new outpatients in dermatology decreased in acne, pruritus.

**Conclusions** : We could know that there had been many changes of new outpatients in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dermatology

**Key word** : Stastical analysis, new outpatient, dermatology and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 I. 서 론

현재 의료시장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sup>1)</sup> 대한민국의 의료시장은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을 요구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의료자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의료기관간 의료인력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관은 도산 등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특히 한의학계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통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sup>2)</sup> 병원산업의 시장점유율(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급여비와 환자가 부담하는 법정본인부담금 기준)에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병원급 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한의학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의료기관 방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장점유율을 보면 한의원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의원 중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18.7%에 못 미치는 11.3%이다. 사회통계조사<sup>3-5)</sup>에 따르면 의료기관 주 이용률에서 한의원의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증가속도에는 못 미치는 속도이다.

이렇듯이 한의학시장의 주변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알려주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영역의 현 상황을 다룬 통계자료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서 최근 7년간 3개의 논문<sup>6-9)</sup>만 본 학회에 보고되었다.

다만 이들 논문에서도 환자군의 수가 각각 580명, 590명, 1588명, 1695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한방피부과 및 한방안이비인후과에 내원한 4638명의 신환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분포, 질환별 유형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 2000년에 김<sup>9)</sup>이 발표했던 것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대상 및 방법

### 1. 대상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한방피부과 및 한방안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신환 중 안, 이, 비, 구강인후, 피부과 질환을 앓고 있는 자 46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신저자: 김윤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Tel. 02-958-9181, E-mail : kyb6838@hanafos.com)  
• 접수 2007/10/29 • 수정 2007/11/21 • 채택 2007/12/04

## 2. 방법

본 논문은 2000년에 김<sup>9)</sup>이 보고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당시 논문에서 사용하였던 분류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외래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초진 당시 성별, 나이,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신환자들을 분석하였다. 질환별 분포조사에서는 질환별 환자수가 4명 이하인 질환은 기타에 포함시켰으며, 진단명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질환을 선택하되, 어느 것이 중요한지 선별하기 힘든 경우에는 각각의 질환을 모두 선택하였다. 따라서 각 진단명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 Ⅲ. 결 과

### 1. 안, 이, 비, 구강인후, 피부과 신환의 과별 분포.

조사 대상 환자 중에서 각 질환군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피부과 신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환자 중에서 2075명(44.74%)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과 1229명(26.50%), 이과 670명(14.45%), 안과 407명(8.78%), 구강인후과 257명(5.54%)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논문<sup>8)</sup>과 비교해보면 안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전보다 신환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전체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피부과 신환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안과 신환의 비율은 4.94배 감소, 비과 환자의 비율은 1.58배 감소하였으며 이과 환자, 구강·인후과 환자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Table 1).

### 2. 안과 신환의 분포

####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407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181명으로 44.47%였으며 여자신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26명으로 55.53%를 차지하여 남자신환보다 많았으나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보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51-60세의 환자수가 82명으로 20.15%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고 61세 이상의 신환도 15.48%나 되었다. 이는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0-10세의 신환이 41.11%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2).

#### 2) 질환별 분포

안과 질환 중에서 乾性眼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안과 신환 중 36.6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視力障碍로 27.03%, 斜視가 10.07%를 차지하

Table 1. Distribution of Ophthalmology, Ophthalmology, Rhinology, Laryngology and Dermatology patients.

| Classification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Ophthalmology  | 737                       | 43.48%             | 407                       | 8.78%              |
| Otology        | 274                       | 16.17%             | 670                       | 14.45%             |
| Rhinology      | 283                       | 16.70%             | 1229                      | 26.50%             |
| Laryngology    | 97                        | 5.72%              | 257                       | 5.54%              |
| Dermatology    | 304                       | 17.94%             | 2075                      | 44.74%             |
| Total          | 1695                      | 100%               | 4638                      | 100%               |

였다. 이는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보고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斜視 新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43.93%포인트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乾性眼 新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2.17%포인트가 증가하였다(Table 3).

### 3. 이과 新환의 분포

####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670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321명으로

47.91%였으며 여자新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349명으로 52.09%를 차지하여 남자新환보다 많았으나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보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의 新환수가 167명으로 24.94%를 차지하였고, 41-50세의 환자수가 136명으로 20.30%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전의 논문<sup>8)</sup>에서 41-50세, 51-60세의 新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2. Distribution on Sex and Age of Ophthalmology patients.

| Sex and Age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Male            | 322                       | 45.05%             | 181                       | 44.47%             |
| Female          | 405                       | 54.95%             | 226                       | 55.53%             |
| 0-10 years old  | 303                       | 41.11%             | 44                        | 10.81%             |
| 11-20 years old | 141                       | 19.13%             | 30                        | 7.37%              |
| 21-30 years old | 90                        | 12.21%             | 61                        | 14.99%             |
| 31-40 years old | 59                        | 8.00%              | 65                        | 15.97%             |
| 41-50 years old | 45                        | 6.11%              | 62                        | 15.23%             |
| 51-60 years old | 100                       | 13.57%             | 82                        | 20.15%             |
| 61- years old   | 0                         | 0%                 | 63                        | 15.48%             |
| Total           | 737                       | 100%               | 407                       | 100%               |

Table 3. Distribution on Diseases of Ophthalmology patients.

| Classification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Dry eye                 | 18                        | 2.44%              | 149                       | 36.61%             |
| Visual Disorder         | 195                       | 26.46%             | 110                       | 27.03%             |
| Strabismus              | 398                       | 54.00%             | 41                        | 10.07%             |
| Vitreous Opacity        | 5                         | 0.68%              | 25                        | 6.14%              |
| Color vision deficiency | 17                        | 2.31%              | 17                        | 4.18%              |
| Glaucoma                | 20                        | 2.71%              | 16                        | 3.93%              |
| Retinopathy             | 6                         | 0.81%              | 13                        | 3.19%              |
| Retinal detachment      | 6                         | 0.81%              | 6                         | 1.47%              |
| Conjunctivitis          | 33                        | 4.48%              | 5                         | 1.23%              |
| Etc                     | 39                        | 5.29%              | 25                        | 6.14%              |
| Total                   | 737                       | 100%               | 407                       | 100%               |

Table 4. Distribution on Sex and Age of Otolaryngology patients.

| Sex and Age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Male            | 167                       | 60.95%             | 321                       | 47.91%             |
| Female          | 107                       | 39.05%             | 349                       | 52.09%             |
| 0-10 years old  | 13                        | 4.74%              | 80                        | 11.94%             |
| 11-20 years old | 4                         | 1.46%              | 26                        | 3.88%              |
| 21-30 years old | 28                        | 10.22%             | 69                        | 10.30%             |
| 31-40 years old | 43                        | 15.69%             | 89                        | 13.28%             |
| 41-50 years old | 68                        | 24.82%             | 136                       | 20.30%             |
| 51-60 years old | 66                        | 24.09%             | 103                       | 15.37%             |
| 61- years old   | 52                        | 18.98%             | 167                       | 24.93%             |
| Total           | 274                       | 100%               | 670                       | 100%               |

Table 5. Distribution on Diseases of Otolaryngology patients.

| Classification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Tinnitus, Hearing loss | 223                       | 81.39%             | 429                       | 64.03%             |
| Vertigo, Dizziness     | 7                         | 2.55%              | 117                       | 17.46%             |
| Otitis media           | 42                        | 15.33%             | 102                       | 15.22%             |
| Otitis externa         | 4                         | 1.46%              | 9                         | 1.34%              |
| ETC                    | 0                         | 0%                 | 13                        | 1.94%              |
| Total                  | 272                       | 100%               | 670                       | 100%               |

Table 6. Distribution on Sex and Age of Rhinology patients.

| Sex and Age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Male            | 130                       | 45.94%             | 690                       | 56.14%             |
| Female          | 153                       | 54.06%             | 539                       | 43.86%             |
| 0-10 years old  | 59                        | 20.85%             | 503                       | 40.93%             |
| 11-20 years old | 44                        | 15.55%             | 155                       | 12.61%             |
| 21-30 years old | 44                        | 15.55%             | 182                       | 14.81%             |
| 31-40 years old | 56                        | 19.79%             | 166                       | 13.51%             |
| 41-50 years old | 32                        | 11.30%             | 115                       | 9.36%              |
| 51-60 years old | 23                        | 8.13%              | 52                        | 4.23%              |
| 61- years old   | 15                        | 5.30%              | 56                        | 4.56%              |
| Total           | 283                       | 100%               | 1229                      | 100%               |

2) 질환별 분포

이과 질환 중에서 耳鳴, 難聽 新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안과 신환 중 64.03%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나타난 수치인 81.39%보다는 17.36%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眩暈환자가 17.46%로 예전에 비하여 무려 14.91%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Table5).

4. 비과 신환의 분포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1229명의 조사 대상자중 남자는 690명으로 56.14%였으며 여자신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539명으로 43.86%를 차지하여 남자신환보다 적었으나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보고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신환수가 503명으로 40.93%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도 10세 이하의 신환이 제일 많았던 것과는 일치하지만 집중도가 심화되어 20.08%포인트 증가하였다.(Table 6).

2) 질환별 분포

비과 질환 중에서 鼻炎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비과 신환 중 69.3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나타난 수치인 51.60%보다는 17.7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副鼻腔炎 환자가 32.59%로 예전에 비하여 무려 14.41%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Table7).

Table 7. Distribution on Diseases of Rhinology patients.

| Classification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Rhinitis           | 146                       | 51.60%             | 808                       | 69.30%             |
| Sinusitis          | 133                       | 47.00%             | 380                       | 32.59%             |
| Epistaxis          | 4                         | 1.41%              | 14                        | 1.20%              |
| Olfactory disorder | 0                         | 0%                 | 14                        | 1.20%              |
| ETC                | 0                         | 0%                 | 13                        | 1.11%              |
| Total              | 283                       | 100%               | 1229                      | 100%               |

5. 구강인후과 신환의 분포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57명의 조사 대상자중 여자는 175명으로 68.09%로 전체의 약 2/3정도를 차지하여서 이전의 논문<sup>8)</sup>에서 보고된 것보다 더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1-60세 이하의 신환수가 60명으로 23.35%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도 0-10세의 신환 비율이 10.51%로 이전의 연구보다 9.48%포인트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Table 8).

2) 질환별 분포

구강인후과 질환 중에서 인후두염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구강인후과 신환 중 29.96%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구내염, 설의 이상(설염, 설창, 설열 등)이 각각 19.07%, 14.40%를 차지하였다. 예전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3명(3.09%)로 보고되었던 연하곤란 환자는 2004~2006년 동안에는 신환으로 방문하지 않았다.(Table 9).

6. 피부과 신환의 분포

1)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총 2075명의 조사 대상자중 여자는 1266명으로 61.91%로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보고된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21-30세의 신환수가 761명

Table 8. Distribution on Sex and Age of Laryngology patients.

| Sex and Age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Male            | 41                        | 42.27%             | 82                        | 31.91%             |
| Female          | 56                        | 57.73%             | 175                       | 68.09%             |
| 0-10 years old  | 1                         | 1.03%              | 27                        | 10.51%             |
| 11-20 years old | 6                         | 6.19%              | 15                        | 5.84%              |
| 21-30 years old | 17                        | 15.53%             | 27                        | 10.51%             |
| 31-40 years old | 20                        | 20.62%             | 36                        | 14.01%             |
| 41-50 years old | 10                        | 10.31%             | 43                        | 16.73%             |
| 51-60 years old | 26                        | 26.80%             | 60                        | 23.35%             |
| 61- years old   | 17                        | 17.53%             | 49                        | 19.07%             |
| Total           | 97                        | 100%               | 257                       | 100%               |

Table 9. Distribution on Diseases of Laryngology patients.

| Classification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Laryngopharyngitis     | 20                        | 20.62%             | 77                        | 29.96%             |
| Stomatitis             | 15                        | 15.46%             | 49                        | 19.07%             |
| Diseases of tongue     | 11                        | 11.34%             | 37                        | 14.40%             |
| Chelitis               | 0                         | 0                  | 19                        | 7.39%              |
| Hoarseness             | 13                        | 13.40%             | 18                        | 7.00%              |
| Tonsillitis            | 8                         | 8.25%              | 18                        | 7.00%              |
| Adenoid hypertrophy    | 0                         | 0                  | 12                        | 4.67%              |
| Diseases of vocal cord | 5                         | 5.15%              | 11                        | 4.28%              |
| ETC                    | 25                        | 25.77%             | 16                        | 6.23%              |
| Total                  | 97                        | 100%               | 257                       | 100%               |

Table 10. Distribution on Sex and Age of Dermatology patients.

| Sex and Age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Male            | 113                       | 37.17%             | 809                       | 39.56%             |
| Female          | 191                       | 62.83%             | 1266                      | 61.91%             |
| 0-10 years old  | 12                        | 3.95%              | 284                       | 13.89%             |
| 11-20 years old | 40                        | 13.16%             | 311                       | 15.21%             |
| 21-30 years old | 121                       | 39.80%             | 761                       | 37.21%             |
| 31-40 years old | 58                        | 19.08%             | 235                       | 11.49%             |
| 41-50 years old | 31                        | 10.20%             | 203                       | 9.93%              |
| 51-60 years old | 30                        | 9.87%              | 146                       | 7.14%              |
| 61- years old   | 12                        | 3.95%              | 135                       | 6.60%              |
| Total           | 304                       | 100%               | 2075                      | 100%               |

Table 11. Distribution on Diseases of Dermatology patients.

| Classification        | 1996~1998<br>Distribution | 1996~1998<br>Ratio | 2004~2006<br>Distribution | 2004~2006<br>Ratio |
|-----------------------|---------------------------|--------------------|---------------------------|--------------------|
| Atopic dermatitis     | 46                        | 15.13%             | 469                       | 22.93%             |
| Urticaria             | 20                        | 6.58%              | 302                       | 14.77%             |
| Eczema                | 17                        | 5.59%              | 245                       | 11.98%             |
| Seborrheic dermatitis | 32                        | 10.53%             | 216                       | 10.56%             |
| Pruritus              | 50                        | 16.54%             | 208                       | 10.74%             |
| Acne                  | 60                        | 19.74%             | 207                       | 10.12%             |
| Psoriasis             | 20                        | 6.58%              | 107                       | 5.23%              |
| Vitiligo              | 11                        | 3.62%              | 83                        | 4.06%              |
| Alopecia              | 10                        | 3.29%              | 63                        | 3.08%              |
| Erythema              | 0                         | 0%                 | 33                        | 1.61%              |
| Vasculitis            | 6                         | 1.97%              | 23                        | 1.12%              |
| Rosacea               | 1                         | 0.33%              | 16                        | 0.78%              |
| Herpes zoster         | 0                         | 0%                 | 12                        | 0.59%              |
| Verruca               | 0                         | 0%                 | 11                        | 0.54%              |
| Telangiectasis        | 0                         | 0%                 | 9                         | 0.44%              |
| Behcet disease        | 6                         | 1.97%              | 7                         | 0.34%              |
| Pemphigus             | 4                         | 1.32%              | 5                         | 0.24%              |
| ETC                   | 21                        | 6.91%              | 59                        | 2.89%              |
| Total                 | 304                       | 100%               | 2075                      | 100%               |

으로 37.21%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도 0-10세의 신환 비율이 13.89%로 이전의 연구보다 9.94%포인트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Table 10).

## 2) 질환별 분포

피부과 질환 중에서 奶癬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피부과 신환 중 22.93%를 차지하였으며 隱疹 신환도 14.77%를 차지하여 이전의 보고보다 8.19% 증가하였다. 그러나 面遊風 신환의 비율과 癩瘡 신환의 비율은 이전의 보고보다 각각 9.62%, 5.80% 감소한 것이 눈에 띈다(Table 11).

## IV. 고 찰

총 대상신환의 질환별 분포에서 다른 질환에 비

해 피부과 신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4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의 논문<sup>9)</sup>에서 안과 신환이 43.48%를 차지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요즘은 학회지에 발표되는 논문의 경향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2003년에 발표되었던 권 등<sup>10)</sup>의 논문에서는 1988-2002년 사이에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중 이비인후과관련 논문이 43.48%를 차지해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피부과관련 논문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수치는 정 등<sup>8)</sup>의 논문에서 안과 14.23%, 비과 13.92%, 이과 8.25%, 인후과 4.79%, 구강과 2.14%, 피부과 23.05%, 기타 33.63%로 보고되었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추측컨대 경희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頭痛, 頭風은 한방 2내과로, 咳嗽은 한방 5내과로서, 口眼喎斜, 顏面痙攣, 胞輪振跳, 眼瞼下垂는 한방 침구과로 가는 환자들이 절반을 넘기에 그러한 차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환 중 안과 신환의 비율이 8.78%로 급감한 원인은 안과 신환의 질환별 분포에서 찾을 수 있다. 안과 신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斜視는 무려 43.93%포인트나 감소하여 현재는 10.07%에 불과하다. 이는 안과 신환의 연령별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예전에는 斜視환자가 제일 흔한 연령대인 0-10세의 신환이 안과 신환의 41.11%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10.81%로 감소하였다. 이는 예전에 신 등<sup>7)</sup>이 보고 했던 8.64%와 유사하다. 斜視의 한방치료에 대한 연구들<sup>11-14)</sup>이 본 학회에서 많이 발표되었기는 하지만 대한침구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나 질에는 못 미치는 것이 한 원인으로 보이며 마비성 사시 및 조절성 사시를 제외하고는 한방치료의 비용대비 효과가 서양의학의 수술적 치료를 따라가기 힘든 현실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乾性眼 신환은 이전보다 증가하여 안과 질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36.61%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 등<sup>7)</sup>이 보고 했던 15.59%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신 등<sup>7)</sup>의 연구에서는 眼瞼痙攣, 眼瞼痲痺등이 연구에 포함된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乾性眼 신환의 증가는 안과 신환의 연령별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乾性眼환자가 비교적 흔한 연령대인 31세 이상의 신환이 안과 신환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乾性眼의 경우 환자의 수는 컴퓨터, 에어컨, 드라이기, 콘택트렌즈의 사용, 라식 등 수술의 증가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나<sup>15)</sup> 서양의학적인 치료법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증상의 호전에 한계를 느끼는 환자들이 본 과 외래에 많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수치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신환 중 이과 신환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연령별, 질환별 분포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이전에는 이과 신환 중 10세 이하 신환의 비율이 4.74%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11.94%나

되었는데 정 등<sup>8)</sup>의 보고(16.03%)와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이며 이는 최근까지 성업 중인 소아전문 한의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질환별 분포에서는 예전에 비해 耳鳴難聽 신환이 줄은 만큼 眩暈 신환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특이하다. 眩暈의 경우 서양의학에서는 여러 수기기법, 진정재활 운동, 진도제, 진정제 등을 투여하거나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지만<sup>16)</sup>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sup>17)</sup> 수술적 치료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으며<sup>18)</sup> 만성적인 질환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sup>19)</sup>. 하지만 심 등<sup>20)</sup>이나 김 등<sup>21)</sup>의 보고처럼 한방치료는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도 치료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한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 신환 중 비과 신환의 비율은 16.70%에서 26.50%로 증가하였는데 이 원인은 비과 신환의 연령별 분포에서 찾을 수 있다. 비과 신환 중 10세 이하 신환의 비율은 예전에는 20.85%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40.93%나 되는데 이는 정 등<sup>8)</sup>의 보고(32.13%)와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비약적인 증가 역시 최근까지 성업 중인 소아전문 한의원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질환별 분포에서는 鼻炎(鼻鼾, 鼻塞)환자의 비율이 늘어난 만큼 副鼻洞炎(鼻淵)환자의 비율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정 등<sup>7)</sup>의 보고(鼻鼾, 鼻塞 ; 68.33%, 鼻淵 ; 20.81%)와 유사하다.

전체 신환 중 구강인후과 신환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질환별 분포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예전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아데노이드 肥大 및 口脣炎가 관찰되었으나 이는 김<sup>9)</sup>이 했던 분류방법과의 미세한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예전에 기록되었던 嚙下困難이 현재는 사라졌는데 이는 嚙下障礙의 전체적인 빈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한방 2내과로 환자가 이동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 신환 중 피부과 신환의 비율은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17.94%에서 44.74%로 급등하였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피부질환에서 서양의학이 보이는 여러 한계, 즉 스테로이드 제제의 일시적인 효과와 부작용이 알려지고, 여러 피부질환에서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연구<sup>22,23)</sup>가 많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 서양의학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는 心-皮膚간 관계<sup>24)</sup>에 한의학에서는 초점을 맞추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질환별 분포에서는 奶癬, 隱疹, 濕疹 신환의 비율이 증가하고 癩瘡, 面遊風 신환이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奶癬에 있어 한의학 치료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는데 본 학회에도 홍 등<sup>25)</sup>, 손 등<sup>26)</sup>, 김 등<sup>27)</sup>, 김 등<sup>28)</sup>, 조 등<sup>29)</sup> 등 많은 논문이 보고되어 치험례 정리, 외용제의 사용, 경락학적 해석, 삶의 질 고찰, 동물실험까지 많은 방면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隱疹의 경우 한의학 치료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복용을 줄여가면서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역시 선호되는데 특히 만성두드러기의 경우 원인을 알기 힘들고 증상이 재발하기 때문에 서양의학적 치료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sup>30)</sup>, 한의학 치료의 경우 이 등<sup>31)</sup>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유의한 효과를 보일뿐더러 증상의 재발을 줄일 수 있기에 隱疹 신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본다.

## V. 결 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한방피부과 및 한방안이비인후과에 내원한 신환 중 안, 이, 비, 구강인후, 피부과 질환을 앓고 있는 자 4638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질환별 분포를 조사하고 이전의 논문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안, 이, 비, 구강인후, 피부과 신환의 과별 분포에서는 피부과 신환이 2075명(44.74%)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과 1229명(26.50%), 이과 670명(14.45%), 안과 407명(8.78%), 구강인후과 257명(5.54%)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논문과 비교해보면 안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전보다 신환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전체 환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피부과 신환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2. 안과 신환군에서 연령별로는 51-60세의 환자가 20.15%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안과 질환 중에서 乾性眼 신환이 전체 안과 신환 중 36.61%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視力障로 27.03%, 斜視가 10.07%를 차지하였다. 사시 신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에 비해 43.93%포인트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반해 乾性眼 신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32.1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3. 이과 신환군에서 연령별로는 61세 이상의 신환 수가 167명으로 24.94%를 차지하였다 이과 질환 중에서 耳鳴, 難聽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안과 신환 중 64.03%를 차지하였으나 이는 이전의 논문에서보다는 17.36%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에 眩暈환자가 17.46%로 예전에 비하여 14.91%포인트 증가하였다.
4. 비과 신환군에서 연령별로는 10세 이하의 신환 수가 40.93%를 차지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이전의 논문에서도 10세 이하의 신환이 제일 많았던 것과는 일치하지만 집중도가 심화되어 20.08%포인트 증가하였다. 비과 질환 중에서 鼻炎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비과 신환 중 69.3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이전의 논문에서 나타난 수치인 51.60%보다는 17.7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副鼻洞炎 환자가 32.59%로 예전에 비하여 무려 14.41%포인트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5. 구강인후과 신환군에서 여자는 68.09%로 전체의 약 2/3정도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23.35%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강인후과 질환 중에서 咽喉頭炎 질환이 29.96%를 차지하였으며 이외에도 口內炎, 舌의 이상(舌炎, 舌瘡, 舌裂 등)이 각각 19.07%, 14.40%를 차지하였다.
6. 피부과 신환군에서 연령별로는 21-30세가 37.2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피부과 질환 중에서 奶癬 신환이 가장 많아서 전체 피부과 신환 중 22.93%를 차지하였으며 隱疹도 14.77%를 차지하여 이전의 보고보다 8.19% 증가하였고 濕疹환자도 아울러 증가하였다. 그러나 面遊風, 癢癢 신환의 비율은 예전보다 감소하였다.

### 참고문헌

1. LG경제연구원, 의료서비스산업의 환경변화와 향후 전망. 서울:LG경제연구원. 2007.
2. 강성욱, 고정민.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07.
3.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서울:통계청. 1999.
4.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서울:통계청. 2003.
5.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서울:통계청. 2006.
6. 신상호, 김자혜, 김민희, 윤화정, 고우신. 알레르기 비염을 포함하는 과민성 비염 환자 580례에 대한 임상적 고찰.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1):218-27.
7. 신상호, 김자혜, 김민희, 윤화정, 고우신. 안과 질환 외래환자에 관한 임상적 분석.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171-9.
8. 정순영, 서형식.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분석.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18(2):51-61.
9. 김윤범. 외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대한외관과학회지. 2000;13(1):280-90.
10. 권강, 서형식.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들의 경향성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32.
11. 김남권. 외안근 전침요법을 이용한 소아의 마비성 사시 치험 1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3):232-6.
12. 엄유식, 심성용, 남혜정, 김경준. 동안신경마비 사시환자 1례 증례보고.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3):126-30.
13. 이규진, 김혜정. 마비성 사시환자 1례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3):120-5.
14. 이승은, 김윤범. 마비성사시의 한방치험 2례 .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168-78.
15. Perry HD, Donnenfeld ED. Dry eye diagnosis and management in 2004. Curr Opin Ophthalmol. 2004 ;15(4):299-304.
16. Swartz R, Longwell P. Treatment of vertigo, Am Fam Physician. 2005;71(6):1115-22.
17. Luxon LM.,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he dizzy patient,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4;75:45-52.
18. Goksu N, Bayazit YA, Yilmaz M, Bayramoglu I., Surgical treatment of peripheral vertigo and vertiginous diseases, ORL J Otorhinolaryngol Relat Spec. 2005;67(1):1-9.
19. Lempert T, von Brevern M., Episodic vertigo, Curr Opin Neurol. 2005;18(1):5-9.
20. 심성용, 김경태, 엄유식, 남혜정, 김경준. 안구편위와 진탕을 동반한 현훈 환자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106-11.
21. 김성범, 심성용, 김경준, 남혜정. 양성발작성체위성 현훈환자 치험 1례.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3;16(1):214-9.

22. Chiu A, Chon SY, Kimball AB. The Response of Skin Disease to Stress. Arch Dermatol. 2003;139(7):897-900.
23. Altemus M, Rao B, Dhabhar FS, Ding W, Granstein RD. Stress-induced changes in skin barrier function in healthy women. J Invest Dermatol. 2001;117(2):309-17.
24. Chuh A, Wong W, Zawar V. The skin and the mind. Aust Fam Physician. 2006 ;35(9):723-5.
25. 홍성민, 허인희, 변학성, 심성용, 김경준. 상한론 처방을 이용한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1례 보고.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230-9.
26. 손병국, 최인화. 濕熱로 변증한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 환자 치험 6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213-29.
27. 김창훈, 김정태, 정현아, 노석선.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한방 추출물이 포함된 외용제품에 대한 임상 효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7;20(2):187-98.
28. 김민희, 김자혜, 신상호, 노영호, 유현정, 김훈, 김규곤, 윤화정, 고우신. 청장년기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6;19(2):223-32.
29. 조용주, 김진주.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시기별 변화에 대한 경락학적 해석.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1):1-15.
30. 권현조, 조재훈, 김미연, 김형욱, 박영민. 설문지를 통한 만성 두드러기의 임상과 원인에 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2007;45(6):560-8.
31. 이길영, 김혜정. 만성 두드러기에 대한 임상 연구.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4;17(2):81-86.